

### 30. 작은 뿔의 실상(2)

2012. 7. 2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빛 새벽 시간의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는지요. 오늘도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데, 먼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연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계속 부탁드립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을 봉독합니다.

[단7:23~25]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1. 지난 시간에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신앙과 교리로 주장하는 것은 성경 외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때에 관한 계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세 뿔이 뽑힌 것과 성도들을 괴롭게 한 것과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 것과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성도들이 이 작은 뿔에게 붙인바 되었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들을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그래야 하겠는데,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할 수 있을는지요.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만큼만 이야기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우선 이 작은 뿔은 열 뿔 보다 늦게 나온 뿔이니까 게르만 민족이 로마제국 영토에 침입하여 나라들을 세운 후에 로마 영토 안에서 아주 작게 일어난 나라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나라는 먼저 나온 나라들과 다른 것은 지난 시간에 말했나요? 다른 열 뿔들은 정치적 국가인데 이 나라는 정치는 물론 종교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뿔들과 다르고 강합니다. 같은 종교에 속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종교의 수장의 말을 국가 통치자의 말보다 더 복종합니다. 그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뿔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종교국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는데서 그 성질이 드러나지요. 아울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말을 하는 것도 역시 종교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기독교와 관계없으면 하나님의 법 자체를 변경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법을 제정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기 위하여 국가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을 봤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법을 고치려고합니다. 그것도 때와 관계된 법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도록 한 것은 교회가 했다고 그분들이 주장했지요.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강변을 해도 역사가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핀 것 외에 한 두어 참고만 읽어보지요.

[1893년 9월 23일자 “천주교의 거울”이라는 잡지에는 이런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신교도가 생기기 일천년 전에 이미 우리 천주교회는 신성한 사명으로 말미암은 권능으로써 그날을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안식일(일요일)은 신교파로부터도 아무 반대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날은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아 나온 천주교회의 아들이다.”

또 미주리 주 캔자스 시의 리뎀토리트(Redemptorit) 대학의 학장을 역임한 엔라이트(T. Enright) 신부는 1893년에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것이야말로 천주교회의 독특한 권위임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괄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그것을 여기는 자를 지옥에 보낼 권세를 가진 자는 오직 천주교회 하나뿐이다. 천주교회가 제정한 일요일 제도도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 오늘날 문명 세계가 다 이의 없이 따르고 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만, 천주교회는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가 변경한 일요일을 지키라 한다. 이것은 바로 천주교회의 권위의 상징인 것이다.”]

천주교회가 일요일 성수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4세기(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였습니다. 이 회의의 교회 법규 29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여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 반드시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겨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바대로 가능하면 이 날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도 만일 그들이 유대인처럼 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2. 지금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좀 보충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뿔이 뿌리 채 뽑힌 것이라든지, 성도를 괴롭게 한 것이나 또 한 때 두 때 반 때에 관한 것들 말입니다.

답: 예, 지금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교권국이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지요. 먼저 교리문제로 논쟁이 있었는데, 삼위일체문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장로인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의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니고 유사 본질이며 예수는 시작이 있는 분이라고 주장했지요. 이것을 의논하기 위하여 콘스탄틴 황제의 주선으로 325년 니케아에서 기독교 총회를 열었고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믿는 사람들이 소위 정통이라고 말하는 로마를 중심한 교구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주로 야만 국가들에게 전도했지요. 그래서 헤룰리족 반달족, 동고트 족들은 아리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지요. 그런데 아리우스의 주장을 믿는 헤룰리 족이 로마시를 점령하고 행정권을 행사하니까 로마교구 감독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아마도 동로마 황제에게 어떤 조처를 부탁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당시 동로마 황제 제노(Zeno)는 서로마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게르만족인 동고트(Ostrogoths)족의 지도자 데오도릭(Theodoric)을 충동하여 헤룰리를 치게 하였고 헬룰리 왕 오도아케르는 항복했고 얼마 후에 사형되었습니다. 이래서 헤룰리는 망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뿔 하나가 뽑혔지요. 그때가 493년이었습니다.

533년에는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한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은 했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동방 전역의 모든 사제들이 성하의 권좌에 복종하고 연합하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들의 지위에 관한 것이면, 그것이 아무리 명백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다할지라도, 논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성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점에서 우리는 당신의 권좌의 영광과 권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열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칙령은 그 이듬해인 534년에 편찬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수록되고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한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들 국가들은 유스티니아누스 칙령을 거부했지요. 그중에 반달족과 동고트족이 있습니다.

반달족(Vandals)은 그들의 장군 겐세릭(Genseric)의 지도로 고을(지금의 프랑스) 지방을 지나서 북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거기 반달 왕국을 세우고 지중해 일대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세운 때가 439년이었는데요. 교권로마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으므로 로마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이었고, 445년에는 지중해상으로 제국로마를 침입하여 아주 무서운 약탈을 감행한 족속이었습니다.

533년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는, 잃어버린 서로마를 회복하려는 계획으로 교회의 힘을 얻기 위하여 로마교구의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칙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반 교권로마 세력인 반달족과 동고트족을 치려고 명장 벨리사리우스(Belisarius)를 보냈습니다. 장군은 이듬해인 534년에 **반달족**을 정복하였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뿔이 또 하나 빠졌지요.

벨리사리우스 장군은 반달족을 완전히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역시 **아리안파** 교도인, 로마시를 장악하고 있는 동고트족을 쳤습니다. 536년 12월 9일에 마침내 로마시를 점령하고 동고트족을 축출하였으나 로마 주둔군이 수가 적은 것을 안 동고트 왕 위티기스(Witigis)는 1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로마를 침입하여 1년 9개월간 포위하고 있다가 유스티니아누스 가 파견한 응원군의 도착으로 마침내 538년 3월 중순에 로마에서 퇴각하여 로마교구의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령은 반대 없이 실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후 554년에 동고트도 완전히 망하여 **뿌리째 뽑혔습니다**. 이래서 세 번째 **뿔이 뽑혔습니다**. 이래서 7장 8절, 20절, 24절에 예언된 **먼저 뿔 중에 셋이 뿌리까지 뽑혔으며**라는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3. 예, 그렇게 세 뿔이 뿌리 채 뽑혔군요. 참 아주 정확한 성취네요. 우리의 선인들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아주 주의 깊게 세심하게 자세히 살펴서 그 성취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도를 괴롭게 하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당연히 그렇지요. 이 교권로마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나타냈습니다. 그분들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요. Lucius Ferraris의 "Papa II" Prompta Bibliotheca, vol. VI, 25~29).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네요. 몇 구절만 봅시다.

["Pope은 것처럼 큰 위엄과 높음(so great dignity and so exalted) 때문에, 그는 하나의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the vicar of God)이다."

"교황은, 말하자면 땅 위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자들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많은 권세를 가진 왕 중 왕이다. 그리고 그에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나라들의 방향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향까지 위임하셨다."

"Pope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지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그의 양들을 매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

"주 하나님 자신과 구속주가 하시는 것으로 언급된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행한다는 조건 아래서, 그의 대리자도 한다."(Lucius Ferraris, "Papa II" Prompta Bibliotheca, vol. VI, 25~29).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교황 Leo XII의 회장, 1894년 6월 20일-The Great Encyclical Letters of Leo XII, 304.)

우리는 이 선언들이 참람한 선언으로 보입니다. 모든 개신교 교직자들이나 신자들도 그렇게 느끼겠지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는 예언대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 이 기록들을 보니 참 엄청납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참람하다고 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감히 주장을 하니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예언이 적중한 성취입니다. 참 성경 예언이 신묘하네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겠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사실을 모를까요?

답: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한 진실을 알 수 없게 되지요. 사람들이 속는 가장 확실한 길이지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은 믿음이거든요.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라는 종교에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 되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고 그분이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구주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하면 우리가 속상하고 그런 분에 대하여 방어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런 사실이 결코 교권로마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이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당연히 그렇겠지요.

5. 아무튼 교권로마가 성도들을 괴롭혔습니까?

답: 그것은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꽤 들었던 사실들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바돌로메 날의 대 학살이라는 것이 있지요. 기록을 읽어보지요. 네이버 검색에서 바돌로매 학살을 찾으면

여러 글들이 있는데, 그 중 간단하게 쓴 것을 읽어보면, “1572년 8월 24일 로마 가톨릭 교도인 프랑스 왕의 여동생과 개혁신앙 지도자인 헨리 왕자의 결혼식이 예정되었다. 구교와 신교 양진영의 사람들은 모두 이전의 반목과 투쟁을 종식하고 이제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톨릭 진영에서는 이미 위그노들에 대한 대학살이 계획되어 있었다. 결혼식에는 양진영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참여했었는데 생 제르맹 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위그노들에 대한 살육이 시작되었다. 이후 1주일 동안 대략 7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 특히 위그노들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이때 살해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에서 찾으면 이런 이야기만 몇 시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중세기 동안 교권국에 의하여 희생된 개신교도들과 기타 민중들이 아마도 한 5천만 명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긴 것이지요.

6.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도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단체인데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지요? 참 미스터리네요.

답: 그분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핍박의 대상들이나 살해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분들은 이단의 정의를 했고 그 정의에 의하여 이단이라고 판단되면 추방하고 죽이고 구속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 극작가 칼 쉐헤어(Karl Schönherr)가 1910년에 쓴 “신앙과 고향”이라는 희곡은 1620년경의 티롤 지방에 있었던 사실을 희곡화한 것인데, 개신교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300년 이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추방당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속되어야 할 죄였지요. 그분들이 정의한 이단의 정의를 보지요. “이단자(Heretic)는 누구인가? 이단자란 가톨릭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침례 받은 자이다.”(M. 뮤럴, 가톨릭교회의 정통적 해설, 4권, 1885년판, 170)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화폐 위조범이나 다른 범죄자들이 세속적인 당국자들에 의해서도 즉시로 합당하게 사형에 넘겨지거든 하물며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이야 말로 즉시 파문할 뿐 아니라, 분명히 사형에 처해야 하지 않겠는가.”(Thomas Aquinas, 도덕 신학 중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죽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엄청난 죄였으니까요. 예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16:1,2을 읽어보시지요.

[요16:1~4]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할 것까지 말씀하셨지요.

7. 참, 성경을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입신을 위하여 해석하면 엄청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군요. 왜 그렇게 생각 되었을까요?

답: 성경에 계시된 사실들의 참된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막12:24~27) 그들이 부활에 대하여 이상한 질문을 했을 하신 대답입니다.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진멸하라고 한 곳이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인가라고 의심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모세 5경만 그들의 경전으로 믿는 무슬림들은 오경에 기록한 문자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세계적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바미얀 불상을 파괴한 것도 모세 오경에 어떤 우상이든지 파괴하라고 한 문자를 그대로 시행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은 뿔로 상징된 이 교권국도 성경은 글자로 읽는 것입니다. 의미로 읽지 못하지요. 더구나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을 도덕교과서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내 생각이지만요. 이런 사상은 사람들은 다 살아 있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사람은 다 죽은 자라고 단정합니다. 성경의 이런 시각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지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애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할는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깨닫게 되면 복음의 진수를 얻는 것이 됩니다.

8. 목사님, 우리가 다 살아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살아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목사님이나 저도 죽은 자입니까?

답: 성경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시고 창조주이신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죽은 사람대신 죽게 하고 그분이 부활하는 것을 믿을 때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비로소 참으로 산 사람이 되게 하느 ㄴ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하나님의 안목에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은 장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시체를 방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지요.

9. 목사님 말씀을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문제의 답을 얻으면서 한 때 두 때 반 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겠네요.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기도하고 마치지요.

기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에 일어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오래전에 미리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오늘도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